

제1절 개관

민속문화는 흔히 한 나라의 원초적인 구심점을 형성하면서 전승되는 문화적 총체로 정의된다. 이 같은 민속문화는 민속놀이나 민속연극의 형태로 구현되기도 한다. 이 중 민속놀이는 흔히 민속오락, 민속경기, 민속유희, 민속예능, 전승놀이, 향토오락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놀이는 본래 인간의 종교적 신앙행사의 한 부분으로 베풀어지던 예능적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농경시대의 사람들은 신에게 무사태평과 풍요를 기원하는 단계에서 신의(神意)를 탐지하고자 하거나 신을 즐겁게 하려고 신의 행위를 모방하거나, 재연코자 하는 행위들을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민속놀이는 연중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으나, 특히 농경의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구현된다. 즉 정월보름날, 수릿날, 백중날, 한가윗날 등에 베풀어지는 놀이의 양상은 그 규모 면에서도 매우 성대하며 이른 봄의 파종의례, 봄·여름의 성장의례, 가을의 수확의례에 따르는 놀이가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왔음을 엿볼 수 있다. 민속놀이의 요소로는 우선 오락성을 들 수 있다. 곧 민속놀이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또 놀이는 참여자 모두가 주체적 행위자로 인식될 때 재미있어지는 것이다. 대부분 민속놀이는 겨루기 형식을 지니고 있다. 겨루기 형식은 가장 적극적인 재미의 요소이다. 놀이는 흥을 북돋우며 신명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집단화시키며, 대동성을 획득하게 하고 마침내는 혼란의 지경 속에서도 내적 질서를 배태시킨다. 민속놀이의 종류 및 성격은 대개 명절이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며, 놀이하는 주체나 집단의 성별에 따라, 또 놀이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울진지역의 민속놀이와 관련한 옛 기록이나 문헌은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민속놀이의 사례나 실제 자료는 1989년도에 울진군과 안동대학교가 함께 실시한 「울진군 문화재 지표 조사」, 『울진군지』, 『울진의 세시풍속과 놀이』Ⅰ·Ⅱ·Ⅲ을 토대로 기술한다.

제2절 울진지역의 대동놀이

1. 줄당기기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줄당기기

울진의 줄당기기는 한국 줄당기기의 보편적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해안이라는 지리 생